

목탁 스님과 미얀마에서 자비 실천 하세요



**미얀마 관심있는 분
미얀마 문화원으로 오세요~**

한국과 미얀마 양국간 친선 차원에서 창립된 미얀마문화원(공동대표 목탁)은 2003년 8월 22일 서울 종로구 청진동에서 미얀마문화원은 양국의 종교·경제·보건·사회·문화·예술 등 폭 넓은 분야에서 활동하는 NGO단체로 상호 양국 관계를 발전시킬 계획이 있다.

미얀마문화원 내에는 목탁 스님이 지난 20여 년 간 모아 온 부처님 사리와 불상을 전시한 국제불사리박물관이 조성되었다. 미얀마 불교문화를 접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언제나 전전 가능하도록 개방되었으며 정기적으로 마정수기법회도 봉행하고 있다.

후원계좌: 국제불교지도자협회 국민은행:023501-04-147531 농협301-0016-0537-91



- 수행중인 강원 스님들께 직접 공양을 준비해 탁발공양을 몸소 체험했으며, 식수가 부족해 고통받는 국민마을 3곳에 우물을 파 주민들에게 보시했다.
- 종교성 장관 미팅에서는 한국기술총합대학 착공에 따른 제반 사항을 협의했으며 대학교 관리자는 종교성 장관으로 운영자는 종교법인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에서 책임을 갖기로 합의했다. 장관과의 미팅 이후 5만 명의 학교부지에서 착공 의식을 행하였으며 공사 진척에 따른 적절한 시기에 학생 모집 등 개원에 따른 제반 사항을 수시로 협의하기로 결정했다.
- 인도 국경에 가까운 지역의 몽유화에는 백만불의 사원 외에 세계 제일의 와불과 최대의 입불(31층에 해당)이 있는 말 그대로 부처님 성지인 부처님 세상이다. 특히 입불 내부에는 각 층마다 각 나라들의 특색있는 법당 조성되어 있다. 중국법당, 일본법당, 대만, 싱가포르, 캄보디아, 태국, 미국 등의 법당이 조성돼 있고 31층 중에 6층이 한국 법당으로 태화에서부터 한국불교의 법당으로 조성되고 있으며 석가모니 부처님,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보현보살 등 4불의 부처님을 한국에서 조성해 이온 봉안하는 의식을 봉행했다.
- 국제불교지도자협회는 국민 마을을 선정해 50명의 소년들을 선정 출가의식(신부식)을 봉행했으며 성지순례자들이 직접 식발식에 동참해 공양을 올리는 마음을 새롭게 다지는 역할을 해 고아원생들에게 장학금과 운동기구를 기탁했으며 2년여 된 초등학교 운영기금과 비구니(달라신) 수행처 운영기금 전달식도 병행하기도 했다. 또 무연고 어린이들을 양부모되기 운동을 벌였다. 양아들, 양딸들의 인연을 맺고 자식들과의 포용하는 장면은 성스럽고 아름다운 가족의 탄생이기도 했다.

‘황금의 땅’ ‘불탑의 나라’로 일컬어지는 미얀마, 남방불교 국가 가운데서도 수행의 열기와 그 전통이 가장 강하게 남아 있는 곳으로 살아 숨쉬는 부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나라다. 하지만 그 현실은 세계 최빈국 중 하나라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군사정권 하의 장기 독재와 경제 붕괴 속에 하루하루 어려운 삶을 이어가는 미얀마 국민들에게 불교는 하나의 종교라기 보다 삶의 희망으로 다가온다.

지난해 사이클론 나르기스로 인해 막대한 인적, 물적 피해를 입고 폐허가 됐던 미얀마의 국민들을 돕기 위해 한국 불자들이 정성이 모여 희망의 씨를 피웠다. 바로 한국기술대학이다.

한국기술대학 착공 외국어 및 실용기술 전파

국제불교지도자협회 회장 목탁 스님을 비롯해 부원장 법성 스님, 포교원장 천장 스님, 총무부장 법진 스님 등 스님 12명과 재가자 40명으로 구성된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성지순례단은 12월 7~14일 7박 8일간 미얀마 양곤에서 미얀마 종교성 장관과 함께 한국기술대학교 기공식을 열고 제반 사항을 협의했다.

양곤에 들어설 2년제 종합 국립기술대학인 한국기술대학은 미얀마 국민계층 청

소년들에게 한국어·영어·일본어 등 외국어와 컴퓨터 활용·자동차 정비·봉제 기술 등 실용기술을 무료로 교육하는 대학교다. 대학관리자는 미얀마 종교성 장관이, 운영자는 국제불교지도자협회에서 책임을 진다. 현재 미얀마 정부에서 5만 평의 부지를 제공하고 국제불교지도자협회에서 10억 원의 건립기금을 출연하기로 했다.

군사정권 하에 외부 구호 단체의 물품도 정부 통제와 관리를 받는 미얀마 정치 상황에서 국제불교지도자협회의 국립대학 운영권 유지는 미얀마 구호단체 사상 유래없는 일이다. 국제불교지도자협회가 미얀마 정부로부터 부지 제

공 및 관리운영권을 수탁한데는 지난 수십년간 미얀마에서 아낌없이 자비의 손길을 펼쳐 온 목탁 스님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목탁 스님은 미얀마와 실질적인 문화교류를 시작한 대표적인 스님이다. 목탁 스님은 서울 종로에 미얀마문화원을 세우고 한국·미얀마 불교, 문화교류에 적극 나서고 있다.

목탁 스님은 “총장 인선과 교수진 확보, 지속적인 학교 운영을 이끌어갈 이사 선임

을 준비하고자 준비위를 발족할 예정”이라며 “2011년 부처님오신날에 운영 체제를 완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님의 이러한 원력은 이번 성지순례에서 또 다른 결실을 낳았다. 세계 최대 대불이 자리한 만달레이 보디따따웅 사원에 한국관을 개관한 것이다.

보디따따웅 사원은 140m에 달하는 세계 최대 대불과 120m규모의 와불이 봉안돼 만달레이를 방문하는 수많은 외국인들이 찾는 곳 중 하나다. 대불 내부에 32층으로 구성된 각 나라 법당이 있는데 이번 한국관은 6층에 자리하게 됐다.

목탁 스님 원력 결실

보디따따웅 사원 한국관 개관

한국관 개관에는 20여 년간 불사품을 보시한 목탁 스님과 보디따따웅 사원 전 주지인 고 우나라다 스님의 인연이 있었다. 우나라다 스님은 당초 목탁관으로 명칭을 정했지만 목탁 스님의 요청으로 이번에 부처님 봉안과 함께 한국관으로 개관하게 됐다.

이밖에 성지순례에 동참한 스님들과 신도들은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신심의 힘으로 밝은 미소를 잃지 않고 있는 미얀마 국민들에게 한국 불자들의 따스한 자비의 마음을 전달했다.

12월 4일에는 만달레이 몽유와 승가학

교에서 미얀마 스님들에게 직접 공양을 준비해 탁발공양 했으며, 6일에는 양곤 인근 식수가 부족한 국민마을 3군데를 방문해 우물을 파 보시했다.

특히 7일에는 양곤 국민 마을에서 50명의 소년들을 선정해 출가의식인 신부 의식을 봉행해 주었으며 직접 식발식에 동참해 공양을 올리는 마음을 새롭게 다지는 역할을 했다. 이날 신부의식에서는 신도들과 양부모 맺기도 진행했다.

또 성지순례단은 고아원생들에게 장학금과 운동기구를 기탁했으며 2년 여 된

초등학교 운영기금과 달라신 비구니 수행처 운영기금 전달식도 병행했다.

목탁 스님은 “이번 미얀마 성지순례단은 성지순례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넉넉하지는 않지만 순례자 모두가 동참해 나눔을 나누는 행을 행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초발심의 자세로 되돌아가 자신을 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스님은 “고통받는 지구촌 이웃들에게 따뜻한 정을 나누는데 역점을 뒀 순례자 모두가 삼보의 존엄성과 승가에 대한 존경심, 봉사의 의미를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